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내일 개막

금남로서 가면극 등 19개 공연
비엔날레광장서 탈춤 등 다채
시청 인근서 스트리트댄스경연
“열린 축제·공동체 화합의 장”

9월 광주 거리가 예술공연과 최정상급 스트리트댄스 경연 등 ‘꿀잼’으로 가득 채워진다.

광주시는 거리예술축제의 대명사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을 21일 금남로에서 막을 올린다. 프린지는 9월 2주간 토·일요일 금남로, 비엔날레 광장,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린지는 ‘어쩌다 마주친’을 주제로,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거리예술’을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와 일상의 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이번 프린지는 서커스·무용·음악극 등 다채로운 장르의 ‘거리예술 공연’을 비롯

해 퍼포먼스·1대 1·3대 3 댄스배틀을 벌이는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 맛있는 먹거리와 즐겁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 등이 준비된다.

먼저 21일 금남로에서는 연극, 가면극, 공중극, 신체극 등 전문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19개의 다양하고 풍성한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올웨이즈 드리킹(스페인)의 브라스 마칭밴드 ‘거리는 우리의 것’, 이판(프랑스)의 서커스 줄타기 ‘나의 날개’, 라이이(홍콩)의 서커스 파이어 ‘흐름’ 등의 해외 초청공연과 함께 멜랑콜리댄스컴퍼니의 무용 ‘초인’, 창작그룹 노니의 이동형 가면극 ‘바람노리’, 리퀴드사운드의 전통예술 ‘긴:연희해체프로젝트’ 등의 국내 공모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제공연으로 자체 제작한 ‘아스팔트 부르스(부제:너를 만나고 싶어)’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예술인 200여 명이 직접 출연, 관람객들과 함께 광주만

의 이야기 ‘모두의 율립’을 연출할 예정이다. 공연은 금남로 일원을 이동하면서 시민참여형 거리극, 공중극, 시민풍물단이 함께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22일에는 비엔날레 광장에서 제15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16개의 예술공연이 펼쳐진다.

우석훈의 라이브드로잉 ‘떠돌이 화가’, 천근성의 이동형 거리예술 ‘햇가이 글루맨, 광주에 가다’ 등의 미술 퍼포먼스와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전통탈춤 ‘할멈과 무등산호랑이’, 나래의 참여형 연극 ‘걱정인형을 살려주세요’ 등이 관객을 기다린다.

28~2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화려한 스트리트댄스 경연을 벌이는 ‘프린지리그 I’이 막을 올린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프린지리그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스트리트댄서들이 참가해 ‘댄스팀 퍼포먼스’와 ‘1대 1’, ‘3대 3’ 댄스 경연으로 진행된다. 전국 고교와 대학 스트리트댄스 관련학과와 대학전 형식의

로 학교의 명예를 건 치열한 승부와 열띤 응원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댄스팀 퍼포먼스 경연은 댄스 스타 블랙밤(B.O.T.B)이 사회를 보고, 진우(엠비서스), 리벨(코스믹디폴로), 호진(웰드페이스), 먼로(가수 안무가), 해리(안무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또 ‘1대 1’, ‘3대 3’ 댄스경연은 예선, 8강, 4강, 결승 등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댄서들인 심사위원들의 ‘저지쇼’와 ‘2024 일본 NTV 더 댄스 데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보이팀 ‘진조크루’, 락킹 댄스크루 ‘프렌치 프라이즈’, 엠넷 스트릿 무먼 파이터 2에 출연한 유명 댄서 ‘왁씨’의 특별공연도 펼쳐져 스트리트댄스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먹거리 푸드트럭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판매대, 광주문화재단과 협력 기관 홍보부스 등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리문화 체험프로

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거리축제로 인해 20일 낮 12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전일발당부터 금남공원까지 도로가 통제되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역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우회한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우회 안내표를 부착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우회하는 19개 노선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광주시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누리집(<http://fringefestival.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시민·예술인·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이자 공동체 화합을 나타내는 광주 정신이 담긴 축제”라며 “올가를 광주를 느끼고 싶다면 축제장을 꼭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어린이·임신부·65세 어르신 대상

광주시는 20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접종은 쏠림 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기를 분산해 진행한다.

대상자별 일정은 2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는 20일부터 가능하다. 1회 접종 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을 하게 된다.

노령층은 △75세 이상 10월 11일부터 시작하며, △70~74세 10월 15일부터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과 예방접종도우미 애플리케이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또 자체사업으로 50~64세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의료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 만큼 접종 후 면역형성 효과 지속 기간(접종 2주부터 항체 생성, 평균 6개월 유지)을 감안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어르신 독감 백신 접종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두 백신의 접종을 원하는 경우 같은 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노병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광주비엔날레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9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장성에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한다

도, 50억 투입 내년말 시설 완공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
영농 교육 등 귀농인 정착 지원

전남도는 이론과 실습, 지역사회 화합 등 체계적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 시행착오 최소화과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 효과가 있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2024년 지원사업 대상자에 장성군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7개의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도내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693명 중 443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 전입률도 64%에 달해 신규 농업인력 유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성 북이면은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담양~고창 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교통 여건으로 인해 도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장성군에 설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할 경우 귀농귀촌 성공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영농기술에 필요한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 재배에 대한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영농복합 교육 시설이다. 예비 귀농인이 6개월 정도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별 선도농업인 등과 연계해 과수, 채소 등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의 화

합을 조성해 농촌생활과 지역사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조성할 체류형 지원센터는 부지 면적 8360㎡ 규모에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50억원을 투입해 공동생활형 체류시설, 영농교육관, 실습농장, 스마트팜, 입주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춘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시설을 완공한 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농귀촌인 유치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체류형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 산업기계 기업, 중동·남아시아 진출 ‘청신호’

도-코트라 시장개척단-6개 기업
리야드·다카서 5213만2천달러 상담

전남도는 코트라(KOTRA) 광주전남 지원단과 함께 ‘2024 산업기계 리야드-다카 시장개척단’을 지난 13일까지 6일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남을 대표하는 산업기계 6개 기업이 참가해 중동과 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했다.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아랍코, 사비 등 35개 현지 바이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70건의 상담을 통해 1102만5000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참가 기업은 각자의 핵심 제품인 산업용 밸브, 신축이음관, 태양열 집열 시스템, 정밀화학 제품, 단열재, 볼팅 장비 등을 소개하며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어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현지 조달 관계자와 바이어를 초청한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총 43건의 상담을 통해 4110만7000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페어 그룹(Fair Group), 윌튼 그룹, HNS 그룹 등 방글라데시 주요 기업이 참석해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출 상담회에는 에너지 및 플랜트 산업에 적합한 산업용 밸브를 제시하는 ㈜엠티에스, 발전소와 건설 프로젝트에 적합한 신축이음관을 제시한 ㈜디엠티, 중동 및 남아시아 시장에 확장 가능한 태양열 집열기를 선보인 금철이노베이션, 정밀화학 제품과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에스에프시, 건설 시장에 활용도가 높은 경향산업(유), 유압 및 공압 토크렌치를 선보인 볼팅마스타㈜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오지현 기자